나주시, 지방선거 대비 고강도 공직 감찰

선거 중립·공직 기강 확립

5월까지 자체감찰반 운영

나주시장 선거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만도 17명에 이르는 등 지방선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로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에 지자체가 적극 나섰다

나주시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지난 4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6월1일까지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시는 자체감찰반을 편성해 5월31일까지 선거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감찰 대상 행위는 ▲선거캠프 직·간접 참여, 행정자료 무단 제공 등 선거관여 행위 ▲SNS상 선거관련 게시글 작성·공유 및 '좋아요' 등 지지의사 표명 등 SNS활동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복무규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 등이다.

이와 관련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선거기간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적발 공무원은 상응하는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된 스피커를 치매관리 고위험군 어르신 가구에 보급하는 'AI스피커 기반 돌봄 운영 사업'을 개시했다. 〈나주시 제공〉

전라도 사투리 사용하는 AI 스피커 어르신 돌보고 소소한 즐거움 선사

나주시 'AI 기반 돌봄 사업'

약 복용 알림·긴급호출 기능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AI스피커가 어르신들을 활짝 웃게 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중인 고위험군 어르신 4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내장된 스피커로 어르신의 일상을 돕는 'AI스피커 기반 돌봄 운영 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말동무, 긴급호출 등의 기능을 갖춘 AI스피커를 70세 이상 독거노인·치매환자 가구에 배치해 일상생활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신개념 돌봄 서비스이다.

AI스피커는 '말벗', '노래듣기',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어르신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완화해 주고, 규칙적인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건강한 노년생활을 돕는다.

여기에 우리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전라도 사투리 인식 기능까지 탑재해 소소한 즐거움도 제공한다.

해당 스피커는 긴급호출 기능도 갖추고 있다. AI스피커에 '살려줘', '구해줘'라고 육성 구조요청을 하면 무인경비업체나 119로 자동 연계돼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치매예방콘텐츠를 활용한 인지능력 유지, 보호자·치매안심센터 복지사 긴급메시지 전송, 가구 정전 시 응급 알림 서비스 등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AI돌봄 서비스 이용 평가를 통해 만족도가 높을 경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대당 3500만원…장성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내일부터 신청…10대 선정

"이젠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타세요."

장성군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장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군에 제출된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군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총 10대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1종으로, 지원 차종에 관한 정보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5월까지 단속반 운영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 삼가해주세요."

화순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화순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취·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 산불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림 연접지 내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행위,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군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산림 연접지 내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행위 등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정남진농협 '어르신유치원' 개원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

치매환자·장애노인 50명 이용

장흥 정남진농협(조합장 강경일)이 전남 지역농협 가운데 최초로 어르신유치원으로 불리는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사진〉를 열어 호평을 얻고 있다.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는 아침과 점심, 저녁식사 3식을 모두 제공하고 치매억제치료, 물리치료, 보행레일(다리근력), 족욕·안마기 등 25여종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다.

정남진농협이 자체예산 19억원을 들여 1424평 부지에 180평 건물규모로 건립, 지난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기요양인지 3등급에서 6등급까지 치매환자와 장애노인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입소자 본인 부담은 식비를 포함 월(26일기준) 13만원부터 19만9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강경일 장흥정남진농협조합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불편한 고령주민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차원에서 재활노인 복지센터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지 매각 절차 진행

목적 상실 국유재산 매각 처분

함평군이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와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함평군은 지난해 6월 행정 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했다.

또 무단 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건축주에게 부과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께 최종 매각 처분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하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